

프롤로그

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나, 대학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꼬리표로 따라다닐 것이고, 경우에 따라 힘이 될 수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며, 여러분은 지금 논술이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단순한 운이 아닌 전략 싸움입니다. 문장력, 독해력부터 학교별 유형 연습을 통한 실전 문제풀이까지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여러분의 손은 답안지 위에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전략을 통한다면 단기간에 입시를 위한 논술 실력향상은 눈에 보일 것이고, 시험이 마친 후에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연습을 거듭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비교 유형에 강점을 보이기도 하며, 다른 사람은 비판 유형에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논술을 위한 최저등급과 함께 이는 강력한 대학 선택의 무기가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리논술이 포함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며, 그렇지 못한 학생은 인문논술만 시행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모든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전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설정을 통해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닌, 평생 힘이 되는 무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구조 1. 논술은 추상적이지 않다.

논술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책을 많이 읽지 않아 독해력 수준이 낮고,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지레 겁을 먹고 논술 전형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주위사람들이 포기해준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전략, 분석 없이 단순히 총만 들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군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야합니다.

먼저 추상적인 질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 역사가는 객관적일 수 있는가?
- 인간의 감각을 인간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위 질문들은 "판단의 기준"과 "질문의 방향성"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① (가)의 ㉠을 갖춘 유권자라면 (나)의 밑줄 친 '빨간 버스의 구호'를 보고 어떤 질문들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다)의 국가 A, B가 처한 ㉡의 문제를 각각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시오 (1200자, 한양대 2023)

② 제시문 (자)에 언급된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문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 및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제시문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0-420자, 중앙대 2023)

③ <자료>는 두 국가 A, B에서 각각 새로운 데이터 관련 정책을 시행한 이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를 해석하고 이 자료들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성균관대 2023)

앞선 진짜 "추상"의 질문들과는 다른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질문 속에서 "판단의 기준"과 "질문의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며, 요구하고 있는 바가 명확합니다. 또한 글자 수까지 제한하여 답안의 구조마저 정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글을 써보며 연습하고, 배경지식이 있는 제시문이 나오면 잘 풀리고,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첨삭을 받아가면서는 논술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주는 힌트들을 어느 정도까지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답안 구조를 짜며 동시에 문장의 구성을 구상하고 질문의 방향성 위에 올라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논술 공부입니다.

위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돌파해나가기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어떻게 문제를 돌파할 것인지는 뒤에서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